古음반 속 담긴 옛소리의 아름다움

●ACC-국립국악원 협력전 '최고의 소리반' 내달 7일까지

이화중선·임방울·김소희 등 당대 명창 디지털 음원 공개

평원반 유성기

유명 음반회사 빅터에서 발매한 '춘향전' 음반

빅터의 '춘향전' 녹음 기념 사진

100년 전 고(古)음반에 기록된 우리 국악을 들어보고 그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껴볼 수 있는 이색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국립국악원이 다음달 7일까지 ACC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5관에서 '최고의 소리반: 신춘에는 엇든 노래 유행할가'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의 옛 소리를 담은 유성기 음반'을 주제로 열린다. 그간 국립국악원이 수집한 유성기 음반 100여 점과 가사지, 사진, 신문기사 등 관련 자료를 선보이며 고(古)음반에 고스란히 담긴 국악의 예술 및 문화적 가치를 소개한다.

국립국악원은 이번 전시를 위해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궁중음악 음반인 '조선아악'과 '아악정수'를 복각했다. 또한 이화중선, 임방울, 김소희 등 당대 명창의 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도록 복각한 디지털 음원 150여 점을 공개한다.

전시는 유성기 음반과 관련 자료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실과 관객이 복각된 음원과 LP를 체험할 수 있는 감상실로 구성했다. 이 공간에서 관객은 디지털로 복각된 유성기 음반의 음원 150여 점과 관련 영상 및 자료를 선택해 감상하고, LP를 다뤄보는 등 아날로그 음향기기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전시 1부 '최초의 소리기록'에서는 최초로 소리를 기록하고 재생했던 기계인 유성기와 음반의 역사를 소개하고 그 의의를 살펴본다.

임방울 명창의 적벽가 공연 실황 녹음 릴테이프와 채보 자료들

2부 '최고의 가치'에서는 조선 궁중음악인 '조선아악'이 기록된 유성기 음반과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고난 속에서도 기록돼 현대까지 전해지는 우리나라 궁중음악의 문화적 가치를 알아본다.

3부 '최고의 인기'에서는 1920-30년대 대중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춘향전'을 다루며 시에론, 콜롬비아, 빅터, 오케 등 유명 음반회사에서 발매한 음반과 시기별 변천 과정을 소개한다.

4부 '최고의 스타 명창'에서는 인기를 끌었던 송만갑, 이동백부터 이화중선, 임방울, 박록주 등 당대 스타 명창들의 사진과 관련 기록들을 만나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5부 '국창 임방울의 음반'에서는 호남권 대표 국창이자 당시 음반 판매 20만장을 기록했던 임방울의 소리와 음반을 다루며 그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한다.

전시와 연계한 공연도 열린다. 전시 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는 명창 주소연·김명남·하선영·허애선의 '심청가', '흥보가', '춘향가'를 전시실 내부에 마련된 무대에서 차례로 들려준다. 공연은 해당 날짜와 시간에 전시실을 방문하면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

전시 관람료는 무료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전시는 국립국악원과의 첫 협력 전시로 수도권에 집중된 우수한 콘텐츠를 광주지역에서 선보여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깊다"며 "많은 국악인을 배출했던 문화예술의 중심지 광주에서 국악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아시아 문화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김경수 박사 '광주땅 최초 이야기' 개정판 최종본 출간

지난 3년 간 본보 연재물 엮어 구성…100가지 주제

향토지리연구가 김경수 박사의 '광주땅 최초 이야기' 개정판 1·2·3권 전권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사진〉

김 박사는 지난 3년 간 본보에 총 100회에 걸쳐 연재한 글을 엮은 광주역사지리 탐구서의 최종본을 최근 펴냈다.

코로나19 상황 속 광주지역 연구에 몰두해 펴낸 결과물로, 광주의 최초 아파트부터 백년사 책까지 모두 100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다.

김 박사는 "독자들의 응원과 제보, 질의에 따라 광주매일신문과 SNS를 통해서만 이어오던 연재물을 단행본으로 펴내기로 결심했다"며 "지난해 말 1권, 올해 초 2권, 지난달 말 3권이 차례로 발간되면서 총 1천50쪽, 2천300여장의 사진·지도·표 등의 참고자료가 담긴 총 3권의 시리즈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인터넷 정보혁명 시기 장소에 따른 차이는 좁혀졌지만, 계층에 따른 불평등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서울과 지방 간 편차가 심하다"며 "호남권 수위도시 광주를 사례로 실제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정하고 탐구에 나섰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호기심에서 시작했다"고 책을 쓴 계기에 대해 말했다.

김 박사는 이번 결과물을 시작으로 해마다 증보판을 발간할 계획이다. 장소별(동별) 작업과 인물탐구 또한 이어간다. 또한 각 주제를 세부적으로 다룬 단행본을 만들어 광주최초 100권을

완성시키겠다는 포부다.

김정호 전 향토문화진흥원장은 이 책에 대해 "김 박사는 이 글을 쓰면서 방대한 자료와 수많은 땅 이력서를 열람하고, 중요 대목은 수시로 관계기관을 찾아 확인작업을 거쳤다"며 "그 어떤 출판물보다 돋보이는 노력의 산물이자 값진 결실이며, 광주 지역사의 보물이다"고 평했다. /최명진 기자

호남권역 가족정책 네트워크 강화 나선다

광주여성가족재단 등 4개 기관 MOU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북여성가족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함께 지난달 28일 '호남권역 여성·가족 정책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지속가능한 성평등 의제 발굴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연구와 교육,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남권역 4개 여성·가족 정책 전문기관들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개 기관대표와 관계자들은 협약 체결 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성·가족 정책 분야 연구와 사업개발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으로 출범식과 호남권역 여성가족 정책 포럼을 5월께 추진키로 했다.

호남 중심 성평등 정책 모델 개발을 통해 정부 정책을 견인하고, 저출생·고령사회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여성·가족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또한 4개 기관은 호남권역 여성정책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지역사회 공헌을 약속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기관 릴레이'를 실시해 그 뜻을 더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전북·제주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부는 기부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과 성평등한 호남의 발전을 응원하는 의미를 갖는다.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광역 차원의 여성·가족정책 의제 발굴이 가능해졌으며,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호남권역 성평등한 공동체 실현이 한층 가까워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가·무·악 어우러진 '국악의 향연'

2024 토요상설 첫 무대…9일 남도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오는 9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2024 토요상설 공연의 첫 막을 올린다.

이번 무대는 국악연주단의 가·무·악 종합공연 '국악의 향연'이다. 기나긴 겨울을 견디고 버틴 새싹이 다시 움트는 봄을 연상하며 '다시, 봄'이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이날 공연은 음악을 듣는 이에게 '하늘처럼 영원한 생명'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의미의 '수제천'으로 시작한다.

다음으로 궁중정재 복식에 화관을 쓰고 추는 춤인 '화관무'(사진), 이른 봄 눈 내리는 마을 풍경을 평화롭고 신비하게 표현한 18현 가야금독주 '춘설'(春雪), 대금산조에 맞춰 추는 '산조춤'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 경기민요 '사철가', '노들강변', '잦은방아타령', 사계절 풍경에 따라 자연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노래한 남도민요 '사철가'와 '신사철가', 화려한 농악가락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삼도농악가락'까지 흥겨운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장악과(061-540-404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국립남도국악원은 다양한 공연과 교육, 체험을 통해 더욱 풍성한 국민의 문화쉼터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사 944-0993
지방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